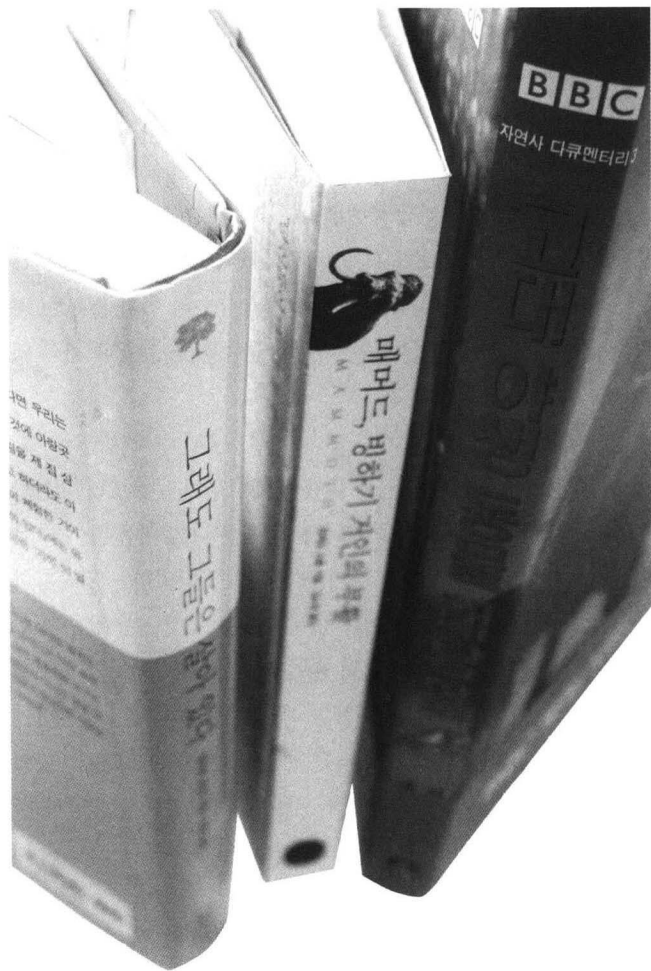


사라졌거나 숨어 있거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매머드, 빙하기 거인의 부활

고대 야생 동물 대탐험

그래도 그들은 살아 있다



매머드, 빙하기 거인의 부활

리처드 스톤 지음 김소창 옮김 지호 310쪽 값 13,000원

고대 야생 동물 대탐험

탐 해먼즈 지음 김혜원 옮김 사이언스북스 266쪽 값 33,000원

그래도 그들은 살아 있다

로타르 프렌츠 지음 이현정 옮김 생각의나무 342쪽 값 15,000원

● **이 글을 쓴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과학책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과학소설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복제양 돌리》《클론 AND 클론》《일부일처제의 신화》《앞으로 50년》《핀치의 부리》《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인간의 본성에 대하여》《남자》《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 등이 있다.

동물의 눈은 약 40가지가 있다고 한다. 즉 40번 넘게 발명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동굴에 사는 동물들에게서 알 수 있듯이, 동물들은 애써 발명했던 눈을 쉽게 버리기도 한다. 식물의 체형도 그렇다. 같은 과에 속한 가까운 식물들 사이에서도 나무 형태를 한 것들과 풀 형태를 한 것들이 섞여 있다. 식물에게는 나무나 풀이라는 형태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 듯하다. 이렇게 생물을 부위별로 뜯어놓고 보면, 어쩐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한다. 생물들은 이미 지구에 있는 온갖 환경들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았고 그에 맞는 적응 양상을 진화시켰을 테니까. 똑같은 것이 다시 발명되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개체나 종의 죽음을 대할 때의 느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래 전에 사라진 생물들을 대할 때, 우리는 향수와 장엄함, 경이로움과 가슴 뭉클함 같은 것들을 맛보게 된다. 가령 휘어지면서 길게 뻗은 상아를 지닌 거대한 털북숭이 매머드가 그렇다. 리처드 스톤의 《매머드, 빙하기 거인의 부활》은 매머드를 찾고 부활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얼어붙은 시베리아에서 매머드의 사체가 모습울 드러내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매머드는 얼어붙은 상태로 보관된 덕분에 우리가 그들의 피부와 살과 내장을 직접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멸종한 동물들 중 특이한 부류에 속한다. 그리고 현대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부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영화 <쥐라기 공원> 덕분에 우리의 의식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그냥 상상이라고 치부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해져 있다. 이 책은 매머드가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열띤 관심과 발견과 추측의 대상이 된 시대를 거쳐, 바야흐로 부활시킬 존재로 부상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사라진 동물의 부활이 과연 <쥐라기 공원>에서 실감나게 다루어진 것처럼 벅찬 감동과 더불어 두려움을 안겨줄 것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매머드의 멸종 원인이 기후 변화인지, 인간의 사냥인지, 바이러스 같은 질병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부활한

매머드가 동물관 러다이트 운동으로 다시 멸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라진 동물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면 BBC 자연사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 하나인 팀 헤인즈의 《고대 야생 동물 대탐험》을 펼쳐보자. 이 책에 실린 화보들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우리는 그 동물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느낌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경이롭다기보다는 신기하다는 느낌이 더 든다. 공룡의 멸종 이후 세계를 다룬 이 책에는 공룡 못지않게 멋진 삶을 살다가 사라진 또 다른 부류의 동물들이 등장한다. 거대한 공룡들에 비해 초라해 보이기에 잊혀진 신생대 동물들을 말이다. 물론 매머드도 여기에 속한다.

공룡이 사라지자 포유동물들의 눈앞에는 무주공산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육식성 새들에게 밀리는 듯이 보였지만 포유류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발휘했고, 마침내 거대한 털복숭이 포유동물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포유류들 중에는 공룡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많다. 공룡 이전의 파충류, 그 뒤의 공룡들, 그리고 그 이후의 거대 포유류에서 비슷한 체형과 생활양식이 세 번에 걸쳐 독자적으로 발명되었다고 나 할까. 특히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빈치류는 온갖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안타깝게도 이 신생대의 거대 포유류는 지금은 후손인 인류에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인간은 그들보다 먼저 살았던 공룡들에게 더 흥미를 느끼는 듯하다. 스물스물 배어드는 두려움을 은근히 즐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더 거대하고 더 무시무시하게 생긴 공룡들의 화석에 밀려 이 포유류의 화석들은 현재는 박물관의 골방에 처박혀 잊혀진 신세가 되었다. 매머드는 구석에 처박혀 있느니 차라리 부활하겠다고 외치는 듯하다. 하지만 잊혀진다는 것이 반드시 서러운 것만은 아니다. 잊혀졌기에 혹은 숨어 있었기에 살아남은 것들도 있으니까 말이다. 1819년 프랑스의 자연학자 조르주 퀴비에 는 앞으로 새로운 포유류 종이 발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연달아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 그의 말을 비웃었다. 로타르 프렌츠의 《그래도 그들은 살아 있다》에 실린 이야기이다.

다행히 많은 생물학자들이 노력을 한 덕분에, 이제는 열대우림 같은 생태계에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무수히 숨어 있으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그런 생태계의 보존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중 중 심주의적 사고방식을 계속 상기시키는 전술도 한몫을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숨어 있는 동물들은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의 오만함을 무너뜨린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 있다》는 그런 숨어 있는 동물들을 찾는 신비 동물학계의 이야기이다. 신비라는 말이 붙으니 웬지 과학과 신비주의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기회주의 성향이 엿보이는 듯하다. 네시니 설이니니 빅foot이니 하는 말이 등장하니 말이다. 하지만 실러캔스, 오리너구리, 대왕오징어도 본래는 신비한 동물이었다. 현실적인 이유로든 낭만적인 이유로든 간에 신비한 세계에 속한 동물들을 찾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다. 매머드를 부활시키려는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말이다.

어린 시절 쉴 베른의 《해저 2만리》를 읽을 때에는 노틸러스 호를 휘감은 거대한 오징어를 상상의 산물로 생각했다. 실제로 그런 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다. 대왕오징어가 바로 그것이었다. 대왕오징어는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 전해져 왔음에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신비한 동물 중 하나였다. 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도마뱀붙이들, 조스는 저리 가라 할 거대한 메가마우스도 그랬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 있다》는 이런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동물들과 함께 예티, 오랑팬텍이라는 인간 같은 원숭이 등 아직 신비에 속한 존재들도 소개한다. 신비와 과학의 경계선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신비는 계속된다고 외치면서 말이다. 물론 지금은 차라리 발견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발견이 곧 멸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으니까 말이다.